

# ‘지금 이 자리에서 착하게 살라’ 가르침 생생

## 길상사 살림꾼 덕운 거사

“1976년, 대원각을 절로 만들어달라는 김영한 할머니 말씀에 법정어스님은 평생 주지를 맡아본 적이 없을뿐더러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시며 십 년 동안 사양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대원각을 ‘맑고 향기롭게 정신운동’ 도량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돌레 분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도가 나왔어요. 그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란 말씀이 와 닿아서, 바로 경북궁 앞 법련사에 가서 (무소유)를 사고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도 받았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드려야 큰일인데 있는 것을 드렸으니 내세를 일이 아니라고 했던 길상화 김영한 보살 말씀에서 보시布施와 회향廻向, 참 뜻을 헤아렸다는 덕운德雲 정태호(58) 거사는 길상사 개원 이래 이제까지 길상사 일을 내 집 일처럼 살피는 든든한 살림꾼이다.

덕운 거사 할아버지는 스님이였다. 범허凡虛 스님. 신라 진평왕 10년(588)에 건립된 문경 김룡사에서 대처승으로 살다가 그곳에서 입적을 했다. “집안도 그렇고 절 아래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었어요. 오촌 당숙도 대한불교관음종 총회회장 정범

없는 것을 만들어드려야 큰일인데  
있는 것 드렸으니 내세를 일이 아니라는  
길상화 보살 말씀에 덕운거사는  
보시·회향의 참 뜻을 헤아리다

룡 스님이신데 인천송도 흥룡사에 계세요. 길상사에 다니기 전에는 그곳이 원찰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저희들에게 ‘행복을 찾지 말고 네가 행복하게 살아가라. 무엇을 보더라도 좋게 보라. 누구라도 칭찬하라.’고 늘 말씀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이며 청량사 주지인 지현 스님이 덕운 거사 육촌 형님이고, 동생이 지현 스님에게 머리를 깎은 운단 스님이다. “또 사촌 동생이 화곡동 용문사 주지 스님으로 있어요, 관조 스님이라고. 고향 동네에 김룡사는 지금은 직지사 말사가 되었지만 전에는 대 본찰이었어요. 성철 스님이 사신 적이 있고, 서암 스님도 금룡사에 계시다가 불암사로 가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물이 들어서 그랬는지 스님이 많이 나왔어요.”

덕운 거사는 길상사에 다니기 전에는 당숙이 주지로 있는 인천 흥룡사를 열심히 다녔다. “맑고 향기롭게, 뜻이 좋았어요. 스님 책을 읽을 때는 늘 설렜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건축회사다보니 지방 출장이 잦아 인천까지 가기 쉽지 않았는데, 마침 길상사



가 문을 열어서 길상사에 다녔습니다. 개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맑고 향기롭게 본부장 윤정광 선생님이 월간지에 길상사를 소개하면서 저하고 선일 거사, 범우 거사 그리고 당시 거사팀 부회장이었던 향적 거사를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절이 좋고 어른스님이 좋아서 길상사에 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길상사에 빠를 뻔했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히더군요. 제 마음이 약한가? 싫어서 불교를 제대로 배워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길상사불교대학은 생긴 지 이제 이태밖에 안됐잖아요. 그때는 길상사에 불교대학이 없을 때라 어떻게 할까 공리를 하다가, 마침 창원으로 발령이 나서 창원 봉림사불교대학을 다니다가 서울로 돌아와서는 정도불교대학을 다녔어요. 정도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가장 힘을 많이 쏟더군요. 그때 수행, 닦음과 실천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더욱더 다지게 되었어요.”

덕운 거사는 어른스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가슴 깊이 박힌 가르침이 ‘지금 이 자리, 여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과 계를 받을 때 세 살배기 어린애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든 먹은 늙은이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착하게 사는 일이라며 ‘착하게 살라’던 말씀이 늘 귀전을 때린단다. “맑고 향기롭게

마음,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나들이 길, 늘 깔끔한 뒷정리  
소중한 물건 더 생기면 다른 이에게  
법정 스님 책 읽은 친구 그대로 실천

는 ‘마음·세상·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운동이잖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임무에다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아끼고 사랑합시다. 꽃 한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털 쓰고, 털 버리십시오.’ 하는 실천덕목을 써서 붙여놨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재경 총무였는데, 모임소식을 염서로 보낼 때 제목을 ‘맑고 향기롭게’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른스님 책에 나오는 향기로운 말씀을 마디를 먼저 적고 나서 모임소식을 알렸어요. 그 글을 아이들이 보고 좋아한다면서 좋은 글귀를 써줘서 참 좋다고,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른 스님 말씀에 젖어 살았습니다.”

덕운 거사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우며 미장원을 하면서 홀로 사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에게 법정 스님 책 <산에는 꽃이 피네>를 선물했다. 한참 만에 다시 만난 동창은 책을 외우다시피한단다면서 돈으

로 파질 수 없을 만큼 큰 덕을 보았다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책을 읽고 스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면서 자랑을 했어요. 늘 깔끔하게 뒷정리를 하고 나들이를 나간단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하나 더 생기면 얼른 다른 이에게 주어, 살뜰함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지장전을 짓고 나서 지장전에서 천일기도를 했다. 그때 법정 스님은 덕운 거사를 비롯해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을 불러 차담을 나눴다. 법정 스님은 ‘오른쪽 가지에 달린 나뭇잎이 왼쪽 가지에 달린 잎을 움직이려면, 간곡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간절함이 뿌리에 전해져 어머니 뿌리가 왼쪽 잎을 움직인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했다.

개원 초기 길상사는 대원각 시절 발각되었던 스님들 처소에 오래된 초가, 짚을 걷어내고 지붕을 새로 얹고, 도량도 치고, 구석구석 파묻은 쓰레기를 캐내는 일로 온통 몸살을 앓았다. “제가 시골출신이라서 일머리를 알아 열심히 했죠. 절에 오면 모두들 아예 작업복으로 같이 입고 도량을 치고, 하수도 청소도 하고 일주말 앞이나 마당도 쓰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어요. 거사님을 비롯한 모든 수행단체 회원들이 누구 하나 힘들다고 하지 않고 자동으로 적극적으로 돌아갔죠.” 덕운 거사가 절 살림을 드러내지 않고 잘 하는 좋은 길상사 불자라면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바깥에서는 어떻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듯이, 맑고 향기로운 덕운 거사 살림은 바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99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쩍새 마을 사건이 있었다. 몸이 불편한 늙은이,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자라고 알려졌던 슬퍼 일력 여성추행을 일삼고 후원금을 착복한 일이 드러났다. 그 뒤로 후원이 끊겨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후원이 끊겨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냈어요. 가보니까 어른이고 어린이고 모두 장애자더라고요. 어린이들은 저를 ‘오빠, 오빠!’ 하면서 반겨요. 저는 돌레 밭에 농사짓는 일을 거두고 안식구는 애보거나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중증장애인을 수발을 들었어요. 팔뻓도 같이 가기도 하고요.”

덕운 거사는 길상사 길동무 범우 거사 권유로 ‘부름의 전화 자원활동대’와 인연을 맺고 15년 세월 한결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다. “부름의 전화는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시장을 가거나 병원에 갈 때 차로 모시며 보호하고 수발드는 일을 해요. 1998년에 처음 갔으니까 어이구,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부름의 전화 자원활동대’는 시각장애인을 모시고 다니는 파송활동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에는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꺼려했기 때문에 창피하다며 집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대장님이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고 다

**화제의 신간**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3천권 돌파  
1주년 기념**

**50% 파격세일**

정가 380,000원

**180,000원**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악식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들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 / 010-3813-4443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뱀은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정가(권당) 120,000원

**권당 60,000원**

① 신국판/양장본/567쪽 ② 신국판/양장본/712쪽

입금계좌(예금주: 임현주) : 농협 023-02-500940

